

“결혼보다 일”...독신 새 풍속도

“짝 찾지 못한 사람” 옛말...전용아파트 분양에 ‘구름손님’

중학교 윤리교사인 양인자(48)씨는 혼자 사는 것을 즐기는 독신 여성이다.

“독신도 결혼과 마찬가지로 삶의 선택일 뿐”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그는 “하는 일이 하도 많아 외롭다는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산다. 학교에 있는 동안은 학생들 가르치는 일에 몰두하지만 퇴근 이후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느라 보통 밤 10시가 넘어야 집에 들어간다.

퇴근 뒤 ‘자기만의 시간’에 그는 요일별로 시간표를 짜 가야금·거문고·대금·단소·아쟁 등을 배우고, 이달 들어선 새로 컴퓨터와 영어 회화학원에도 등록했다.

아홉 형제 중 여섯째인 그는 지금껏 부모나 형제들한테서 “결혼 하라는 말보다는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멋있게 살라’는 말을 더 많이 들었다”면서 “앞으로도 독신으로 살 계획”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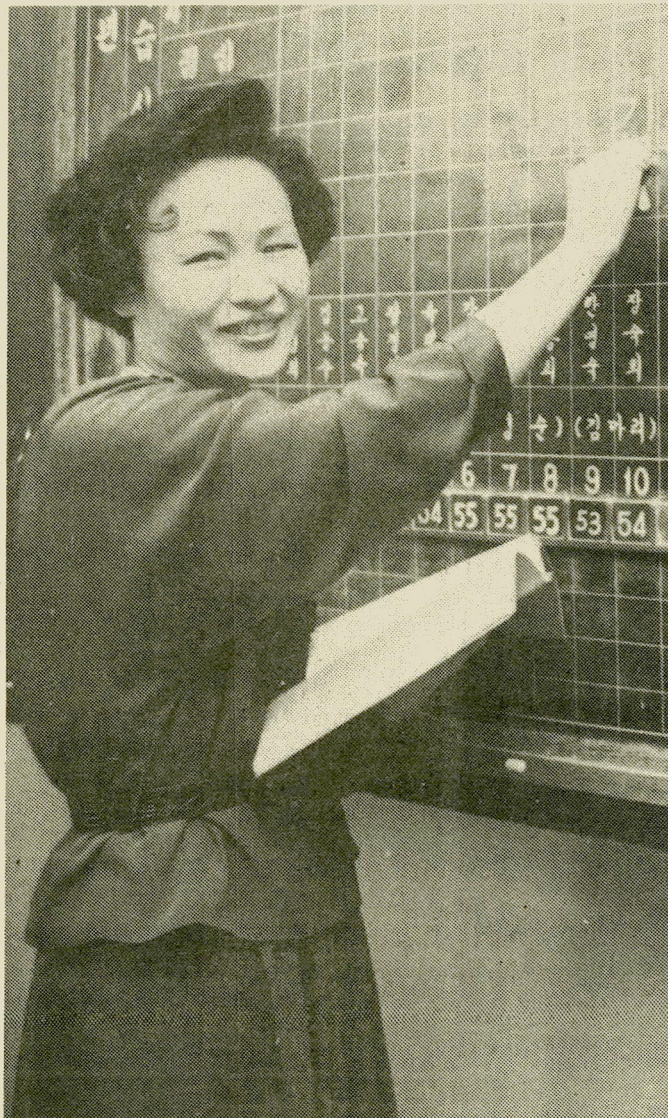
증권회사에 다니는 이인수(33)씨는 부모와 친구들이 “너, 결혼 안할거니?”라고 물을 때마다 “지금의 일이 너무 재미있다”는 말로 대답을 대신한다.

요즘은 양씨나 이씨처럼 결혼을 뒤로 미루거나 아예 독신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얼마 전만 해도 독신자를 ‘매력이 없어 짝을 찾지 못한 못난 사람’으로 보던 인식이 크게 바뀌어 요즘은 ‘독립적으로 자기 삶을 사는 사람’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다.

현재 전국에 독신자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난해 가을 원룸시스템의 독신자용 아파트를 분양해 인기를 모은 선경건설은 회사원·자유업종사자·전문직업인 가운데 혼자 사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1백만 명쯤 되고, 이중 30만명 가량이

가정의 해, 가정의 달 변화하는 가족 현장 4



“부부동반 모임에서 소외되는 것 말고는 독신이 훨씬 여유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독신예찬론’을 펴는 양인자씨는 교단에만 서면 활기가 넘친다.

곽윤섭 기자

서울에 사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직장인만을 계산한 것으로, 실제 독신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예상외로 독신자가 많은 까닭에 대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현섭 박사는 “젊은층의 가족에 대한 가치관에 근본 변화가 온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성의 사회참여를 긍정적으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와 ‘결혼해서 가정에 얽매이기보다는 사회에서의 자아실현을 중요시하는 여성’들이 차츰 많아지고 있는 것도 중요한 요인의 하나”라고 장 박사는 덧붙였다.

최근 늘어나는 독신자 가운데 독신여성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전국의 18~34살 여성 5천1백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혼형태조사’ 결과, 결혼하지 않은 여성의 비율이 25~29살층은 60년 4.9%에서 90년 21.8%로, 30~34살층은 0.6%에서 5.6%로 높아지는 등 독신의 증가추세가 뚜렷하다.

그러나 독신층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겨냥한 원룸시스템 아파트, 초소형 가전제품 등 ‘독신자용 상품’은 잇따라 선보이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정책적인 뒷받침은 전무한 상태다.

한국여성개발원 변화순 책임연구원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는 사회변화 추세에 맞춰 이전 독신자도 가족의 새로운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세금 공제 혜택이 전혀 없는 세제상 불이익, 독신이든 가족이 10명이든 똑같이 내는 의료보험료, 독신자의 아파트 당첨자격 제외 등 제도상 불이익을 개선하는 ‘독신자를 위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연숙 기자